

[사회]

5·31지방선거 한달앞 선거사범 2배 급증

금품제공·당비 대납·공무원 정당 가입 順

5·3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부정선거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사범이 지난 선거 때보다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에 따르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이날 현재까지 광주지검 및 관내 목포·순천·해남·장흥지청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21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지검이 75명, 순천지청 73명, 목포 54명, 해남 9명, 장흥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회 지방선거 당시와 비슷한 시기(D-30일)의 입건자 수 111명에 비해 95% 늘어난 것이다. 광주지검의 경우 이날 현재까지 입건된

75명 중 4명을 구속했으며, 29명을 기소하고 12명을 불기소했다. 또 3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에 입건된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금품제공, 당비대납 등)이 33명(44%)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의 특정정당 가입 13명(17.3%) ▲흑색선전 10명(13.3%) ▲선거조사업무 방해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종류별로는 입건자 75명 중 광역단체장 선거관련이 5명, 기초단체장 선거 25명, 광역의회 30명, 기초의회 15명 순으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 관련 선거사범이 많았다.

검찰은 이처럼 선거 사범이 급증한 것에 대해 개정 공직선거법이 대폭

강화된데다 당비 대납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당내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 ▲불법·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련 및 공직수행 방해 불법선거운동 등 4대 선거사범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광주지검 이형철 공안부장은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불법·부정행위자뿐 아니라 교사 및 배후자를 철저히 추적하고 불법선거를 통한 당선자에 대해서도 선거일 이후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계문화유산 화성 서장대 불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사적 제3호)의 서장대(西將臺)에서 1일 새벽 방화로 불이 나 누각 2층이 모두 소실됐다. 불은 목조건물인 누각 기둥과 석가래 등에 옮겨붙으며 누각 2층(19m)을 모두 태웠다.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해발 128m)에 위치해 있으며, 화성의 문화유적 중 최고 인기코스다.

/연합뉴스

반팔 활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구름조금	12~26℃
목포	구름조금	12~23℃
여수	구름조금	14~19℃
순천	구름조금	11~22℃
해남	구름조금	11~26℃
장흥	구름조금	10~23℃
영광	구름조금	10~24℃
보성	구름조금	12~22℃
고흥	구름조금	9~27℃
진안	구름조금	11~24℃
완주	구름조금	11~23℃
진성	구름조금	12~26℃
고성	구름조금	10~27℃
영암	구름조금	12~26℃
무안	구름조금	12~26℃

5월 2일

(음 4월 5일)
◇전국날씨

서울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동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남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5:15 썰물 < 10:25
16:55 22:11
여수 밀물 < 11:30 썰물 < 05:47
17:40

▲해돋이 05:41 ▲해질 19:18 ▲달출 08:00 ▲달진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날씨						
최저/최고	8/25	13/26	14/24	15/20	14/23	13/26



근로자의 날 기념식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1일 오전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대동 단결 화합 한마당' 축제.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의장 정수민(가운데)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민노총 순천 하이스코서 경찰과 대치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정희성)는 1일 오후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인근 왜성대(倭城臺) 주차장에서 '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승리 2차 결기대회'를 열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겸해 열린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900여명이 참여, "현대하이스코 협력사 측의 약속서 이행"등 구호를 외

치며 경찰과 대치했다.

조합원들은 또 '근로자의 날'을 맞아 흥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보낸 축하 화분을 '항의의 표시'로 깨뜨리기도 했다.

경찰은 15개 중대 1천500여명의 병력을 동원, 집회 장소와 현대하이스코 공장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5·18기념행사의 하나인 '전국 노동자 대회'를 마련 뒤, 또 한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지회 정경진 조직차장 등 2명은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신축공사의 21층 타워크레인(높이 70m)에 올라가 조합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교통사고 피해자 10명중 7명 입원

**일본보다 무려 8배나 높아
선량한 운전자 보험금 부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피해자 10명중 7명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입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1일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2004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한국의 교통사고 피해자 입원율은 7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73.9%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이지만 일본의 교통사고 피해자 입원율 9.1%보다는 7.9배나 높은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상해등급 8급 이하 경상자의 70.8%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과도한 입원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보험사와 합의를 유리하게 하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한

데다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입원 유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경미한 사고이지만 경찰 신고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입원을 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4년 보험사에 신고된 교통사고 건수는 80만7천204건, 부상자 수는 119만5천867명이었다. 이는 경찰에 접수된 사고 건수 22만7555건, 부상자 수 34만6천987명보다 각각 3.7배, 3.4배가 많은 수준이다.

또 보험사에 신고된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2000년과 비교하면 27.9%, 32.4%가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이 누수되고 그 부담은 선량한 운전자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판사가 법원 일반직 감금”

노조 항의에 “언행 반성” 입장 밝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일 재경 모 지방 A 판사가 지난달 15일 직원 3명을 자기 방에 불러 낮 12시부터 7시간 동안 강제로 머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A 판사가 당일인 4월14일 '구속영장에 기재된 인치 장소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직원 3명을 불러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을 방 밖으로 내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노조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A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언성을 높이고 흥분했던 언행을 반성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 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전보조치됐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휴직 후 미국에서 연수 중인 이정렬 판사는 법원노조 홈페이지(www.bubwon.org) 게시판에 "내 자신도 법원 직원들에게 왕으로 군림했다"며 스스로 반성하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독도 민간전화 내일 첫 개통

독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민간전화 3일 개통된다.

KT는 1일 독도 주민 김성도(66·울릉읍 독도리 산 20)씨 집에 일반 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독도의 자연경관 훼손을 피하기 위해 울릉도와 전화선이 연결된 동도로부터 무선장치를 이용해 서도를 연결기로 했다.

독도경비대가 생활하는 동도에 전화 6회선과 직통전화 11회선이 설치돼 있으나, 김씨가 살고 있는 서도에는 전화가 없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에 전화개통이 이뤄지면 '독도는 한국의 전화가 연결된 한국 땅'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된다.

김씨에게는 조선 속종 때 안용복이 1693년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이 독도·울릉도 근해 어로활동을 금지토록 한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 전화번호 '054-7* * -1693번'이 부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태양주택개발 TEL:062) 282-888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업/임도/임수

TEL: 06512-0347-0 FAX: 06512-1097

독일보청기

독일보청기 전문점

공무원 직장인 신용(보증)대출

대환이율 1544-1731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5월 1일